



박소현의 섹.시.토크

J는 요즘 봄을 알고 있다. 날씨가 나른하니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다. 삶에 의욕이 없는데 잠자리에 의욕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저녁도 뜨는 등 마는 등,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는 등 마는 등,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흘이 멀다고 잠자리를 요구하니 처음에는 그냥 귀찮기만 하다 이젠 화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곤해 죽겠는데 가만 좀 놔둬.”
“피곤한 걸로 치면 밖에서 일하고 온 내가 더 피곤해.”

“그럼 그냥 잘 것이지 왜 이래?”
“하고 자면 잠도 잘 오고 좋잖아.”
“내가 수면제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다 결국은 J가 포기하고 남편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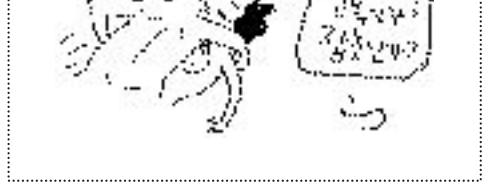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오랫동안 J를 괴롭힐만한 체력은 못 된다는 사실이다. 길어봤자 5, 6분이었는데 끝나고 나면 남편은 늘 “당신 생각해서 일찍 끝냈어”라고 거짓 생색을 내곤 했다.

그러던 휴일 오후, 날씨가 좋아 J는 여덟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꽃나무 앞에 세워두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아이가 철쭉이나 개나리 앞에서 찍는 것은 싫고 한 사코 벗꽃 앞에서만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

“왜? 철쭉이랑 개나리도 예쁘잖아, 여기서도 한 장 찍어.”
“싫어요. 벗꽃이 더 예뵤요. 개나리는 촌스러워요.”

“꽃이면 다 예쁘지 촌스러운 꽃이 어딴?”
“엄마 눈에만 예쁘지 내 눈에는 촌스러워요.”

제 눈에 촌스럽다는데 어찌됐다. 그냥 아이가



고 들어온다. J가 뭘 느끼는지,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도 없다. 그저 제 불일만 몇 분 보고는 끝이다.

남편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남편 눈에 나는 어떤 꽃일까? 아들이 예뻐라하는 벗꽃일까? 아니면

헤달라네 대로 빛나무 아래에서만 사진을 찍어 주었다. 어린 눈에도 예쁜 것, 촌스러운 것을 따지는 모습을 보고 대견하다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여자없이 J의 몸 위로 올라왔다. 키스 한 번도 없이 그저 손으로 가슴 몇 번을 주무르더니 바로 팬티를 벗기고 안으로 밀

아들 눈에 촌스럽게 보이는 철쭉이나 개나리일까?
생각해 보니 남편과의 섹스에 흥미를 잃어버린 건, 남편이 J를 귀한 꽃처럼 여기지 않게 되면 서부터인 것 같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으며 구석구석 입을 맞추던 것이 대체 몇 년 전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구석구석 봐 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키스라도 한번 하면서 들어밀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바람 안 피우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비록 극진한 사랑을 받는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때때로 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 내가 꽃이 맞긴 맞을까? 고목이나 잡초는 아닐까?

불일을 다 본 남편이 옆으로 쓰러지듯 눕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J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오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남편이 J가 남몰래 울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J도 돌아누우며 어서어서 꽃이 다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꽃 진 자리에 누구의 눈에도 별 구별 안 가는 똑같은 연두색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돌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예칼럼 리스트>

봄꽃 앞에서 슬픈 이유

아들 눈에 촌스럽게 보이는 철쭉이나 개나리일까?

생각해 보니 남편과의 섹스에 흥미를 잃어버린 건, 남편이 J를 귀한 꽃처럼 여기지 않게 되면 서부터인 것 같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으며 구석구석 입을 맞추던 것이 대체 몇 년 전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구석구석 봐 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키스라도 한번 하면서 들어밀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바람 안 피우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비록 극진한 사랑을 받는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때때로 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 내가 꽃이 맞긴 맞을까? 고목이나 잡초는 아닐까?

불일을 다 본 남편이 옆으로 쓰러지듯 눕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J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오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남편이 J가 남몰래 울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J도 돌아누우며 어서어서 꽃이 다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꽃 진 자리에 누구의 눈에도 별 구별 안 가는 똑같은 연두색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돌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예칼럼 리스트>

리빙 센스

피부 관리

■당귀
당귀는 칙칙한 피부를 맑게 해준다. 세안 후 뜨거운 물에 당귀를 넣고 그 김을 쐬어준다. 미지근하게 우려낸 당귀를 직접 얼굴에 올려 두었다가 온수로 씻어낸다.

■녹차물
녹차에는 비타민이 풍부해 미백에 효과가 있고, 피부 결을 정돈해준다. 녹차를 세면대에 넣고 우려낸 뒤 녹차물을 얼굴에 끼얹어가며 마사지한다.

■우유
우유 성분은 각질 제거에 좋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 준다. 마무리 세안 단계에서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 얼굴에 바르고, 피부 결에 따라 마사지해준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음 3월 13일戊子)

子 36년생 감물이 합류하니 파도소리가 높다. 48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0년생 특별한 제방도 귀구름으로 뚫린다. 72년생 지층은 가장과 의논하라. 84년생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자신이 높이 오른다. 행운의 숫자: 03, 04

丑 37년생 협력자를 만나는 격으로 도움을 받는다. 49년생 집안 안장은 지속되나 함을 잃어 생긴다. 6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한다. 7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85년생 친구를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13, 15

寅 38년생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좋은 날이다. 50년생 여러 방면으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한다. 6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은 있다. 74년생 뜻밖의 술자리는 피하라. 행운의 숫자: 05, 14

卯 39년생 가정의 우환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1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해야 손해를 피한다. 63년생 부부간의 이해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5년생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된다. 행운의 숫자: 16, 13

辰 40년생 믿는 도깨비 위험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52년생 합작사업 신규투자는 절대 금하라. 64년생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잡고 가려는 경사롭다. 행운의 숫자: 07, 12

巳 41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나 이투기는 어렵다.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처리한다. 77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은 없으니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11, 18

午 42년생 옛 일이 튀어나와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54년생 가정에서 소란사가 발생하니 조용히 해결한다. 6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흥이 북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78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09, 10

未 43년생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라. 55년생 목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화해를 시도하라. 67년생 사고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 하라. 79년생 연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19, 20

申 44년생 겉으로는 좋으나 속으로는 싫은 사람이 생긴다. 56년생 자신과 직장사이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아늑한 보금자리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0년생 오늘은 밖에서 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1, 17

酉 4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57년생 삼반된 직장을 만난 격이니 백사를 신중해야 한다. 69년생 의외의 득재와 회인의 안정이 있다.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22, 27

戌 46년생 식구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8년생 오늘 하루는 의견보다는 내공을 하라. 70년생 많은 일이 순조롭고 새롭게 주변의 도움이 발생한다. 82년생 눈을 조곤한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16, 23

亥 47년생 조용한 후손에 뜻을 던지니 결과는 반반이다. 59년생 새로운 사업이나 허황된 문서에 눈물나니 신뢰를 회복하라. 71년생 상관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3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행운의 숫자: 24, 2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우눈은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물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최흉만이 군대에 간다고?”

이번 주 ‘테크노 폴리웃’ 최흉만의 군입대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최흉만은 1999년 병역법이 바뀌면서 제 1차 징검다리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연예활동에 의해 군입대를 미뤘었던 최흉만은 지난달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결심했다.

최흉만의 입대는 육군을 고민에 빠뜨렸다. 육군 측은 “현재 보유 중인 보급품 가운데 최흉만의 체격에 맞는 품목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키가 218cm인 최흉만은 일반 침상을 사용할 수

없어 간이 발 받침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발 사이즈도 370mm라 전투화도 따로 제작하게 생겼다. 탄피는 2개를 연결해 보급하는 등 육군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네티즌은 “나도 남자지만 인간적으로 최흉만은 좀 봐줘라. 면제 시킬 사람은 면제 안 시키고 사지 말정만 애들은 빠져나가고...”, “솔직히 K-1이나 K-2 방아쇠에 손가락 들어가나? 옷도 따로 맞춰야 하고, 훈련소에서도 같이 자기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중국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병사체

로 발견된 탈런트 탄정도 인터넷 세상을 들끓게 했다. 중국 당국이 탄정의 사인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망 직전 한국인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 3명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중국 당국은 탄정의 사망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중국 전역의 언론사에 “왜곡보도를 즉각 삼가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흉만이 군대에 간다고?”

없어 간이 발 받침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발 사이즈도 370mm라 전투화도 따로 제작하게 생겼다. 탄피는 2개를 연결해 보급하는 등 육군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네티즌은 “나도 남자지만 인간적으로 최흉만은 좀 봐줘라. 면제 시킬 사람은 면제 안 시키고 사지 말정만 애들은 빠져나가고...”, “솔직히 K-1이나 K-2 방아쇠에 손가락 들어가나? 옷도 따로 맞춰야 하고, 훈련소에서도 같이 자기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중국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병사체

로 발견된 탈런트 탄정도 인터넷 세상을 들끓게 했다. 중국 당국이 탄정의 사인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망 직전 한국인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 3명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중국 당국은 탄정의 사망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중국 전역의 언론사에 “왜곡보도를 즉각 삼가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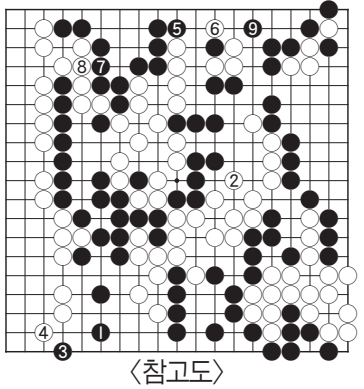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8 197 199 194
200 179 193 182 191 185
196 195 192
208 207 204
206 205 201 176 168 186
170 166 167 172 189
178 177 169 173 171 174
184 180 183 181 175

기우회 대항전

후수 두집의 완착 11보(166~209)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현재의 형세는 매우 미세한 형국이 나 흑이 선수를 잡고 있는만큼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흑 ▲는 백 대마를 추궁하면서 204로 끊는 수를 보아 일리가 있는 수였

다. 그러나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는 것이 알기 쉬웠으며 백 2로 살배 3을 선수한 다음 9가 끝내기였으면 미세하나마 흑이 이기는 길이었다. 백 166으로 붙여서 살아간 것이 백이 이득인데 김희관 5단 흑 77까지 둘 수 있다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흑 179는 큰 곳이며 백이 180으로 쫓았을 때 흑 181로 이은 것이 후수 두집에 불리한 수로 대안작이 되었다. 이 수로는 상변 192에 두어 흑한 점을 살릴 곳으로 이래도 흑 우세할 것이다. 거꾸로 182로 잡아서의 극미의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유창혁 한국물가정보배 첫승

유창혁 9단이 1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4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본선 B조 리그에서 백홍석 6단을 상대로 2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유창혁은 전투에서 백홍석을 압도했다. 우변 전투에서 노련한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은 유창혁은 잇따라 중앙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완승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이세돌 9단은 A조 리그에서 조훈현 9단을 245수 끝에 7집반승으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대전이다. 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42>

오하오우 니혼고 <1142>

니하오 쑹구위 <119>

한자 이야기 <759>

When are you going to go on vacation?
언제 휴가를 떠날 거니?
A: When are you going to go on vacation?
B: I don't think I'm going to.
A: How come?
B: Well, I don't really have the money to.
A: 언제 휴가를 떠날 거니?
B: 가지 않을 까 하는데.
A: 왜?
B: 음, 사실 돈이 없거든.
\* 이 장비는 언제 팔 거니?
= When are you going to sell this equipment?
\* 언제 저녁 식사할 거야?
= When are you going to eat dinner?
\* 언제 엄마하고 가게에 갈 거니?
= When are you going to take Mom to the store?

の朝(あさ)は何をしますか.
아침에는 무엇을 합니까?
A: 金さん、日曜日(にちようび)の朝(あさ)は何をしますか.
B: 雨(あめ)が降(ふ)らない時(とき)は、近(ちか)くの公園(こうえん)へ散歩(さんぽ)にいきます.
A: 朝(あさ)ご飯(はん)の後(あと)で何をしますか.
B: 掃除(そうじ)や洗濯(せんたく)などをします.
A: 김씨 일요일 아침에는 무엇을 합니까?
B: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A: 아침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B: 청소랑 세탁을 합니다.
雨(あめ)が降(ふ)る: 비가 내리다
散歩(さんぽ)に行く: 산책을 가다
~など: ~등, ~따위

也不错.
역시 괜찮습니다
A: 你的学习成绩怎么样?
níde xuéxì chéngjì zěmeyàng
B: 不错.
bùcuò
A: 你表姐的成绩怎么样?
nǐ biǎojiě de chéngjì zěmeyàng
B: 也不错.
yě bùcuò
A: 당신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B: 괜찮습니다.
A: 당신 사촌누나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B: 역시 괜찮습니다.
成绩 [chéngjì] 성적
不错 [bùcuò] 괜찮다

同病相憐(동병상련)
한가지 등, 병들 병, 서로 상, 불쌍할 런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서로 불행한 처지에서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비유한다. 동우상구(同憂相憐)라고도 한다. 이 말은 사기(史記) 열전(列傳)의 스타인 오자서(伍子胥)와 관련이 있다. 오자서는 본래 초(楚)나라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 형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뒤 오(吳)나라에 망명하여 오왕 합려(闔閭)를 도와 초나라에 복수하고 하였다. 그 해 초나라의 백비도 오자서와 같은 처지가 되어 오나라로 피신해 오자, 오자서는 그를 합려에게 천거하였다. 그때 대부 피리(被離)는 백비의 관상을 보고, 응시호보(鷹視虎步) 즉 매와 같은 눈길로 호랑이 같은 걸음걸이를 하므로 살인할 관상이라며 천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자서는 백비와 자신은 ‘동병상련 동우상구’의 처지이므로 백비를 돕는 것은 인자상정(人之常情)이라고 무시하였다. 그로부터 9년 후 합려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함으로써 오자서와 백비는 마침내 부형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후일 불행히도 피리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월나라에 매수된 백비가 오자서를 비방하여 합려의 아들 부차로 하여금 오자서를 죽이게 하였던 것이다. 오자서의 일생은 파란만장(波瀾萬丈) 그 자체이지만, 한편 인간승리라고도 하겠다.